



湖南新聞



1946년 3월 창간 제 2509호

이메일 : ihonam@naver.com

홈페이지

NAVER

호남신문

검색

2018년 5월 28일 (음력 4월 14일) 월요일

“민주 독주 · 인물난” 野1당-호남1당 체면 구겨



국회의석 116석 자유한국당 광주·전남 고작 4명 출마 광주시장·전남지사 모두 무공천 역대 최악 인물 가뭇 ‘호남1당’ 평화당, 광주시장 포함 단체장 6곳 불출마

6·13 지방선거 광주·전남 후보등록 마감 결과 국회의석수 40%를 점유하고 있는 야당 자유한국당과 호남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호남1당’ 민주평화당이 광주시장 후보조차 내지 못하는 등 극심한 인물난으로 체면을 구겼다.

6·13 지방선거 광주·전남 후보등록 마감 결과 국회의석수 40%를 점유하고 있는 야당 자유한국당과 호남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호남1당’ 민주평화당이 광주시장 후보조차 내지 못하는 등 극심한 인물난을 겪었다.

27일 광주·전남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6시 후보등록 마감 결과 광주에서는 227명, 전남에서는 739명이 등록을 마쳤다. 광주·전남 통틀어 966명이 지방선거에 도전장을 냈다. 국회의원 재선거에는 광주·전남 각각 2명씩 등록했다.

98명(교육감 포함, 국회의원 재선거 제외)을 선출하는 광주에서는 시장 후보 4명, 교육감 후보 3명, 5개 구청장 후보 14명,

지역구 광역의원 후보 47명, 기초의원 118명, 광역의원 비례 12명, 기초 비례 29명 등 모두 227명이 등록했다.

전남지역은 325명을 뽑는 선거에 도지사 후보 5명, 교육감 후보 3명, 시장·군수 후보 73명, 지역구 광역의원 후보 115명, 기초의원 455명, 광역 비례 16명, 기초 비례 72명 등 모두 739명이 등록했다.

정당별로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418명으로 국회의원 재선거와 정당 소속이 아닌 교육감 후보를 제외한 전체 출마자 960명의 43.9%를 차지한 가운데 호남 1당 평화당은 206명(21.5%)으로 반토막에 그쳤다. 호남 2당격인 바른미래당은 42명(4.4%)으로, 민중당 56명(5.8%)에 이어 4위권 정당의 36명, 3.8%과도 비슷하다.

특히, 116석으로 민주당에 이어 국회 원내 2당이던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고작 4명만 출전시켜 0.4%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1998년 제2회 지방선거를 제외하고는 불모지임에도 꾸준히 광역단체장 후보를 냈고 4년 전 지방선거에서도 광주시장과 전

남지사를 비롯해 6명의 광역·기초단체장 후보를 공천했으나 올해는 두 광역단체장은 물론 27개 기초단체장 중 26곳을 무공천했다. 심정우 여주시장 후보만 유일하다. 지역구 의원은 박삼용 광주 광산구의원 후보가 유일하다. 나머지 2명은 광역 비례대표 후보여서 정당 득표수에 따라 당락이 가려질 처지다.

국정 농단에 따른 촛불 정국과 대통령 탄핵 등의 악재에다 남북정상회담 등 집권 여당에 힘을 실어주는 대형 이슈가 잇따르면서 출전선수 찾기가 역대 최악이었다는 게 당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자유한국당 광주시장 관계자는 “대선 이후 1년 만에 지방선거가 치러지다보니 촛불과 탄핵 정국 분위기가 고스란히 이어진 측면이 있다”며 “백방으로 후보를 물색했지만 쉽지 않았다”고 고소연했다.

평화당도 체면을 단단히 구겼다. 평화당은 국회의원 지역구 의석 14개 모두 호남에 몰려 있다. 광주는 8석 중 4석, 전남은 10석 중 5석, 전북 역시 10석 중 5석을 평

화당이 장악하고 있다. 호남의석 28석 중 14석을 점유하고 있지만 지방선거 성적표는 장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당장 상징적인 자리인 광주시장에 우여곡절 끝에 5·18 사형수 김종배 전 의원을 공천했으나, 김 후보 스스로가 출마를 포기하면서 결국 무공천 선거를 치르게 됐다. 최경환 광주시장 위원장은 “후보등록에 압박해 김 전 의원이 사퇴 의사를 밝혀 현실적으로 새로운 후보를 찾기 쉽지 않았다”고 밝혔다.

광주 서구, 전남 여수·담양·장성·보성·장흥 등 6개 기초단체장 선거에도 이에 후보를 내지 못했다. 이들 지역은 지역구 의원이 민주당 소속이거나 민주당 또는 무소속 후보의 경쟁력이 강해 당선을 보장할 수 없어 공천을 포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무소속 후보로 단일화한 곳도 있다. 광역의원도 33명으로 전체 선거구의 과반을 간신히 턱걸이했다. 특히 담양에서는 단체장은 물론이고 광역의원, 기초의원 후보마저 단 한 명도 출마하지 않아 ‘평화당 무공천대’가 됐다. 장성도 단체장은 물론 기초의원 후보자 15명 중 평화당 소속은 전무하다.

당 관계자는 “인물난에다 여당지지를 고공행진으로 어려움이 많다”며 “모든 선거구에 출마자를 내긴 힘든 만큼 선택과 집중으로 당선 가능한 후보를 집중 지원하자는 전략”이라고 밝혔다.

뉴스



못말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최근 ‘정말 복핵페기가 돼서 500만 국민들 생명과 안전에 지장이 없다면 우리는 선거에서도 좋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및 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이렇게 말하며 “하지만 그것은 망상이자 허구”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로 예정된 북한 합경복도 길주군 풍계리 핵시설 폐쇄에 대해 “오늘 내일 한다는 풍계리 폭파소는 너무 소라고 했다”며 “이미 2003년에 방가탐 폭파소를 한 적이 있고 (풍계리도) 똑같은 절차”라고 주장했다.

그는 “남북문제는 추상적이고 손에 잡히지 않아 선거에 결정적인 변수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정권은 국민들에게 회상을 너무 크게 심어놓았다고 주장했다. 관련 인사들의 속세를 상상해 본다.”

조인호 · 자료사진=뉴스



전남 김 생산액 사상 첫 4800억원 돌파

전년 비 23% 늘어난 42만7000t...848억 원 증가해



전남지역 김 생산액이 사상 처음으로 4800억 원을 돌파했다.

전남도는 2018년 불김 생산을 집계한 결과 생산량은 42만 7000t으로 전년보다 7만 9000t(23%)이 늘었고 생산액은 4845억 원으로 전년보다 848억 원(21%)이 증가했다고 26일 밝혔다.

2018년산 전남 불김은 고흥 등 12개 시군의 2300여가, 70만 척에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생산했다.

시군별 생산액은 진도 1270억 원, 고흥 1100억 원, 해남 983억 원, 완도 555억 원 등이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양식 초기 고수온과 황백화 현상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특히 주 생산 시기인 1~3월 해황이 김 성장에 적합한 최저 수온을 유지해 전년보다 김 생산량이 크게 늘었다.

또 예년보다 강풍에 의한 열체 탈락이나 시설물 파손 등 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도 생산량 증가 요인으로 꼽혔다.

전남도는 최근 중국, 미국 등을 중심으로 세계 김 시장이 확대되고 있어 높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불김의 안정적 공급 및 품질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생산 및 가공 단계에서 필요한 위생시설 설치 지원, 생산 해역 모니터링 강화, 친환경 양식용 기자재(부표) 보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양식단계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불규칙한 어장 재배치 및 시설물 철거 등 지속적 어장관리를 통해 김 품질 향상을 위한 해양 환경 조성에도 꾸준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양근석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김 산업은 양식기술·신제품 개발에 따른 생산 및 수출시장 확대의 선순환 구조를 이루고 있다”며 “품질의 고급화, 다양한 제품 개발,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 및 전략적 마케팅 등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우리가 꿈꾸는 내일, 투표로 실현하세요

6.13.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우리동네



가슴 두근거리는 그 날,
투표하세요!
유월의 따뜻한 햇볕같이
우리 동네 민주주의는
더욱 아름다워집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6월 8일(금) ~ 6월 9일(토)

오전 6시 ~ 오후 6시

선거일 투표: 6월 13일(수)

오전 6시 ~ 오후 6시